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프린트하기 | 저장하기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3.21(화)

제 목 :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시

1. 한.인도 양국은 2006. 3. 23(목) ~ 24(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o 금번 협상은 지난 2월 초순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민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로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작된 것이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2.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1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다.

3. 한.인도 CEPA 협상은 상품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제 등 양국간 교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o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Framework)을 확정하고,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4. 이번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은 2005.1월~2006.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채택된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포괄적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o 동 JSG 권고와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

개발부장관이 서명한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 에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JTF를 출범시켜 제1차 회의를 2006.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첨 부 :

1.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2. 한.인도 CEPA 추진경위
3. 한.인도 CEPA 추진취지
4.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에 관한 각료 공동성명
5. 한.인도 JSG 보고서 주요내용. 끝.

외 교통 상 부 대 변 인

프린트하기 | ✕ 닫기

< 첨 부 1 >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

【한-인도 경제 지표】

(2004년 기준, 단위: 억불)

구분 국가	GDP	1인당 GDP	대외교역액	수출	수입	외환보유
인도	6,918(10위)	\$610	1,863	792	1,071	1,304(5위)
한국	6,796(11위)	\$14,162	4,783	2,538	2,244	1,990(4위)

* 출처 : World Bank, IMF

【한-인도간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14.08	13.84	28.53	36.32	45.99
수입	11.6	12.49	12.33	18.50	21.12
교역수지	3.02	1.35	16.2	17.82	24.87

【주요품목별 수출입 동향】

(2004년 기준, 단위: 백만불)

순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휴대폰	765	21.0	나프타	435	23.5
2	자동차 부품	373	10.3	오일케이크 등	274	14.8
3	선박	166	4.6	면사	274	14.8
4	합성수지	128	3.5	철광석	78	4.2
5	해상구조물	122	3.0	사료	72	3.9
소계		1,554	42.8		1,133	61.2
교역총액		3,632	100		1,850	100

【우리의 대인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신고금액)	12.1	35.2	43.0	21.2	48.9	111.09

【분야별 대인도 진출·협력 현황】

분 야	현 황
전자 분야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부문 인도시장 점유율 - LG전자 : 약 30%대 - 삼성전자 : 약 15-20%대
자동차 분야	○ 96년 진출 현대·기아차가 2003.12월까지 총 50만대 생산돌파 - 2005년 연간생산 25만대 달성 예상, 07년에 연간 40만대로 증산 계획, 인도시장 점유율 2위 기록
건설 분야	○ 삼성물산이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지하철 건설사업 진출 ○ LG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등이 도로, 교량, 댐 건설 사업에 참여
IT 분야	○ 삼성소프트웨어연구소(SISO), 96년 설립, 금년에 연구인력 1,150명으로 확대추진 ○ LGSI, 98년 설립, 금년에 연구인력 600명으로 확대 추진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구분	CEPA 체결전 (2004년)	CEP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억원	779조7천억원	↑1조3천억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불 (1,620만원)	14,186불 (1623만원)	↑24불(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불	88억불	↑33억불(60%)
	대인도 수출	36억불	↑28억불(80%)
	대인도 수입	19억불	↑5억불(30%)
	무역수지	17억불	↑23억불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 출처 : KIEP

< 첨 부 2 >

한 · 인도 CEPA 추진 경위

- 20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20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정책대화를 지속하는 데 합의하고,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 임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기타 경제협력관련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안
- 20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행, 연구보고서 초안 및 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2005.12월 『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한·인도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 20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 동 연구보고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포함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2.7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인도대통령 수행장관(농촌개발부 장관)간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 서명, 3월중 뉴델리에서 JTF 제1차 회의 개최 합의

< 첨 부 3 >

한·인도 CEPA 추진 취지

□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 수교 30여년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상 전반에 걸친 기본틀 (framework) 마련 필요
- 인도는 세계경제질서 구축에 있어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남아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 필요

□ 거대 신흥시장의 선점

- 인도는 현재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으로서(2004년 통계),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BRICs 중 향후 50년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고, 2032년경 일본의 GDP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골드만삭스 보고서)
- 인도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0-20년 평균 5.8%대 경제성장 예상) 내구재를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활용

- 최근 양국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을, 인도의 경우에는 주로 섬유, 석유제품, 광물,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한-인도 FTA체결시 교역증진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인도 FTA의 경제적 효과 기대 (KIEP 연구보고서 참조)

- 한·인도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對인도 수출은 28억불, 수입 5억불 증가) 기대되며 GDP는 1조3천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 4만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 기준)

※ 2004년 교역량 55억불에서 2008년까지 연간 교역량 100억불 달성 가능
(2004.10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양국정상 공약사항)

-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수송장비(11억불), 섬유·의류(4억불), 기계(3.5억불), 화학공업(3억불), 금속(2.6억불)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산업(광물, 농수산물), 섬유와 의류, 화학공업 등에서 5억달러 내외의 수입증가 예상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2004년도 국내기준)

구분	FTA 체결전 (2004년)	FT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국내총생산(GDP)	778조4천억원	779조7천억원	↑1조3천억원 (0.17%)
1인당 국민소득	14,162불 (1,620만원)	14,186불 (1,623만원)	↑24불(3만원)
가구당 평균소득	3,036만원	3,041만원	↑5만원(0.17%)
대인도 교역량	55억불	88억불	↑33억불(60%)
대인도 수출	36억불	64억불	↑28억불(80%)
대인도 수입	19억불	24억불	↑5억불(30%)
무역수지	17억불	40억불	↑23억불
국내 취업자수 (제조업)	1,668만명	1,672만7600명	↑4만7600명

□ 인도의 FTA 추진에 따른 교역상 불이익 극복

- 최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비
 - 특히, 인도-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현지의 자동차, 전기·전자부문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대인도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인 바,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고전이 예상된다.

인도의 FTA 추진동향

- 인도의 기존 FTA 정책 방향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 다목적 차원에서 인도 주변지역 개도국 위주의 다소 소극적인 FTA를 추진
 - 스리랑카와의 FTA체결(04.1월 발효), 서남아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06.7월 발효예정), BIMST-EC,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에 주도적 입지 구축
 - ※ SAFTA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 BIMST-EC :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
- 2000년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열기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와의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태국과 FTA 체결(2004.9월 EHP 82개 품목 대상 발효), 싱가포르와 CECA체결(2005.8월 발효), 한국 및 ASEAN과 FTA 협상 진행 중
 -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경제협력협정
 - 또한, 중국과는 2005.4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 공동연구 Joint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2005.7월 공동연구 시작, 2006.6월 완료예정

< 첨 부 4 >

대한민국·인도공화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 공동작업반 출범에 관한 각료 공동성명

본인, 대한민국(한국)과 인도공화국(인도) 장관은,

향후 더욱 포괄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정책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2004년 10월 양국 정상간에 결의된 공동 결정사항을 상기하고;

동 구상의 일환으로 한국-인도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하여 양국간 양자 경제 관계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였음을 상기하고;

JSG 권고사항 특히 양국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추진 임무 수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인사로 구성된 공동작업반(JTF)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담은 2006년 1월 6일 JSG 보고서를 승인하고;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시 제반 분야에 걸쳐 양국 정상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고, 한국-인도 CEPA는 동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이 될 것이며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JSG의 결론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한국-인도 CEPA의 포괄 범위는, 특히 (i) 상품교역 (ii) 서비스교역 (iii) 무역 원활화 조치 (iv) 투자교류의 촉진, 원활화 및 자유화 (v) 확인된 분야에 대한 양자 경제 협력 증진 조치 (vi) 양자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타 분야로 정한다.
2. 양측은 2006년 3월까지 양국 정부인사로 구성된 JTF를 출범시키고 양국간 CEPA 추진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JTF는 CEPA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여 양국정부가 채택하도록 한다. JSG 보고서는 동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이 된다.

3. JTF 업무는 차관급 인사가 개시, 감독한다.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할 JTF 수석대표는 국장급 인사로 한다. 양측 JTF 인원구성은 별첨과 같다.

4. JTF 하부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정 문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JTF 제1차 회의는 2006년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며, 차후 회의는 매 2개월마다 서울과 뉴델리에서 순환 개최한다.

5. JTF는 양국 정부가 그 결과를 채택하도록 업무를 2007년 말까지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2월 7일, 서울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 · 인도 JSG 보고서 주요내용

□ 한 · 인도 CEP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한 · 인도 JSG는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 경제정책의 유사성, 기존의 양국관계를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 한 · 인도간 CEPA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따라, CEPA를 양국정부가 추진하게 되면,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무역원활화 조치, 투자촉진, 경제협력, 그밖에 양국이 합의하는 분야 등을 포괄하도록 할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CEPA추진은 WTO체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상품 · 서비스 교역 및 투자의 증대, 경제 협력관계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

□ 분야별 주요내용

(1) 상품 (Trade in Goods)

- 비교우위 상품 발굴을 통한 교역품목 다변화를 모색하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관세인하/철폐가 교역증가 및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 공유
- 또한, 통관절차의 개선, 무역관련 법 ·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집행이 용이한 원산지 규정 작성을 건의
- 상품분야에 있어 양국간 잠재교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되, ① 일부 초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부여와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품목을 포괄할 것, ②상호이익의 확보에 중점을 둘 것, ③ WTO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량제한조치를 철폐할 것, ④ 기타 교역확대를 저해하는 장벽 및 규제를 최대한 개선할 것 등의 원칙 준수를 건의

(2) 서비스 (Trade in Service)

- 막대한 잠재력이 있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GATS에서 다루는 모든 서비스 부문과 공급의 형태(Mode of Supply)를 포함할 것, ② 서비스 부문의 양허는 수평적, 부문별 양허를 포괄할 것, ③ 소프트웨어, IT관련 서비스, 금융, 통신, 건설, 운송서비스 분야 등 양국의 교역 잠재력이 큰 분야에 중점을 둘 것, ④ 양국 경제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할 것 등의 원칙을 건의
- IT 및 소프트웨어, 건설, 시청각·오락, 운송, 관광,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어 상호보완성과 교역증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 부문에 있어 시장접근 기회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건의

(3) 투자 (Investment)

- 양국 모두 막대한 투자기회가 존재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상호 투자증진을 위해 ① 양국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및 투자보호를 증진할 것, ② 여타 양자 투자보호조치와 유사한 투자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③ 투자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확보할 것, ④ 투자상담기구 등 투자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등의 원칙하에, 투자장벽 해소, 규제완화 등 양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
- 양국간 투자기회 극대화와 투자원활화를 위해 이미 양국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1996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5년)에 대한 개선, 개정 논의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인식 공유
- 한국의 대인도 투자와 관련, 조세정책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도 투자청내 특별위원회(Fast Track Committee) 및 투자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한·인도 기업간 협의체 설치를 건의

(4) 경제협력 (Bilateral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 양국이 진정한 미래의 경제동반자로 나아가 위해서는 산업, 기술, 금융, 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 해운, 항공, 관세, 검역·기술규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교역과 투자증진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항공협정 등과 같은 기존의 제도적 틀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더하여 관세협력,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이동, IT 및 서비스 협력, 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제도적 틀을 새로이 논의할 것을 건의
- 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앙상공회의소, 경제단체간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분야별로는 IT 및 전자, 통신, 에너지, 의류 및 피혁, 과학기술, 생명공학, 의약품, 관광, 의료,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간시설 및 운송 등 경제 제 분야에서 협력이 모색되어야 함을 건의